

한국전쟁의 유령들

소영현

한국문학번역원 교수

목차

- 1 전쟁, 애도, 유령
- 2 사건으로서의 전쟁, 스펙트럼으로서의 피해
- 3 전쟁 피해의 젠더와 여성의 자리
- 4 생략된 시간과 누락된 노동
- 5 결론을 대신하여: 끝나지 않는 전쟁

국문초록

한국전쟁의 유령들에 대한 관심은 흔적도 기록도 없는 죽음으로 대표되는 애도되지 않는 전쟁 경험과 전쟁 피해에 대한 관심이다. 애도될 수 없는 ‘삶/죽음’, 발화할 수 없는 ‘과거/기억’, 언어화되지 못한 ‘고통/목소리’의 포착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이 관심이 소수자와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로만 한정될 수는 없다. 유령이라는 말이 환기하듯, 애도될 수 없으며 망각되지도 않은 전쟁 경험과 전쟁 피해가 시간을 관통하여 사라지지 않고 종종 출몰하며 지금 이곳의 현실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민간인 학살로 대표되는 전쟁 피해가 그것을 입증할 죽은 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기반해 있음을 상기하면서 비가시적인 전쟁 피해를 역사적 사실로서 입증하는 작업과 함께 그들이 왜 유령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질문해보고자 했다. 유령을 만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찰하면서, 구체적으로 강용준, 윤흥길, 박완서 그리고 김금숙의 작품을 대상으로 ‘접힌 시공간’에 대한 환기를 통해, 유령의 있음이 아니라 유령의 ‘자리 없음’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자리 없음’의 사회문화적 문맥 좀더 정확하게는 젠더적 맥락을 가시화하는 이 작업을 통해, 한국전쟁의 유령들에 대한 성찰이 식민과 냉전의 복잡한 뒤얽힘이 만들어낸 시공간을 돌아보는 일이자 탈식민과 탈냉전 쪽으로의 논의의 진전을 이끌 수 있는 거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국문핵심어: 한국전쟁, 유령, 여성, 전쟁 피해, 장애, 젠더, 윤흥길, 강용준, 박완서, 김금숙

영화 속 스파이는 매력적이지만, ‘간첩’은 무섭다. 신은 받아들여야 하나 귀는 멀리해야 한다. 적어도 유교사회에서 노인은 공경해야 마땅한 존재지만, 사회 속의 할머니는 대대적인 젊음의 찬양 밖으로 추방되는 것이 현실이다. 과장이 허락된다면, 이들은 모두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간첩은 비밀과 합체된 인격이고, 귀신은 전해들은 소문이고, 할머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과거를 품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가끔 눈에 띄기도 하지만, 대체로 쉽게 보이지 않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보면 안된다. 그들/그녀들은 침묵의 기술자이자 고급 정보의 소유자다. 그들은 모두 어떤 편에 속해 있는지 잘 알기 어려운 ‘경계인’이며, 다양한 해석으로 채워지고 재평가될 ‘신화적’ 존재다.

—박찬경 외, 『귀신 간첩 할머니』

어느 순간 사람들은 무당의 목소리를 두려워했다. 식민 지배가 시작되자 무당들은 미신에 심취해 허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되었다. 해방이 되자 무당의 말은 빨갱이들의 암호로 불렸다.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국의 것도, 남조선이나 북조선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정현, 「소녀 연예인 이보나」

1 전쟁, 애도, 유령

한국전쟁은 시대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망을 마련해왔다. 전쟁기에 남북 간 이념 대결은 국민 개개인의 의식 속에서 그리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았으며 내전이자 동족 간 전쟁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급속한 사회 해체와 생존 자체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 한국전쟁은 이미 “지나간, 기억하기 힘든 망각의 대상”이 되기에 이른다.¹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사이에 놓인 한국전쟁이 공산주의에 맞선 ‘자유의 수호’로 새로운 함의를 띠게 된 것은, 베트남전쟁 이후 본격화된 냉전체제 고착화의 결과이다. 이념적 대결 구도가 강조되던 냉전체제 속에서의 한국전쟁의 의미가 다른 맥락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포스트 냉전시대로 불리는 1990년대 이후이다. 진영 간 차이를 확인하게 하는 기밀문서 등이 공개되면서, 이념적 대결 구도의 외부나 공식 역사가 누락한 전쟁의 면모가 가시화되었다.² 국제정치적 흐름이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즉 독

1 김성보, 「한국의 반공주의를 다시 본다」, 역사문제연구소 한독비교사포럼 기획, 『분단의 역사인식과 사유를 넘어』, 한울, 2019, 304-305쪽.

2 Grace M. Cho, *Haunting the Korean Diaspora-Shame, Secrecy, and the Forgotten Wa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김태우, 『폭력』 창비, 2013; 앤드루 세먼, 이동훈 역, 『그을린 대지와 검은 눈: 1950년 한국 전쟁의 영국군과 오스트레일

재정권기 전쟁의 의미와 민주화 이후 그 의미는 꽤 다를 수밖에 없다. 정치적 민주화는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를 국제 정치의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차원 즉 전쟁 피해라는 논의 지평으로 이동시켰다. 한국전쟁의 특수성론이 심화되는 한편, 잔학한 학살행위라는 전쟁에 관한 보편적인 논의 위에서, 전쟁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국가폭력과 젠더폭력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내전이자 이념적 대리전(보복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점에서, 한국전쟁 경험은 어떤 개별적인 경험도 사회적 상흔이 아닐 수 없었는데,³ 그 사회적 상흔의 의미도 전쟁과 분단 이후로 전쟁의 시기를 반추하는 시대 맥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한국전쟁 경험은 전쟁기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재난과 참화로 경험되었던 전쟁이 구체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애도 작업 속에서였다.⁴ 남북한의 분단을 야기한 한국전쟁 경험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과정은 양 체제의 정통성 수립 과정과 맞물려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공식역사에서는 애도될 수 없는 죽음이나 발화할 수 없는 기억, 언어화되지 못한 고통은 개인화되거나 국가 차원의 애도 과정에서 배제해왔다. 제주 4.3 사건, 거창 및 산청 함양 학살 사건, 노근리 학살 사건 등 민간인 학살로 대표되는 국가폭력에 의

리아군], 책미래, 2015.;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창비, 2021.

- 3 가족의 눈으로 본 한국전쟁을 다룬 『전쟁과 가족』에서 권현익은 한국전쟁이 전투원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경험이었음에 주목하여, “민간인이 겪은 이 전쟁상처”를 “사회적 상흔”으로 명명한다. 권현익, 정소영 역,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16쪽.
- 4 한국사회가 한국전쟁을 어떻게 애도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그 질문은 한국전쟁의 의미 확정이나 역사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한국전쟁 경험이 한국사회의 성격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관심과 연관된 것이었다. 한국전쟁 경험이 죄의식과 수치심이라는 사회감정의 상실을 야기한 주요한 계기라는 사실은, 한국전쟁이 이후 한국사회의 감정 구조를 틀 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전쟁 경험의 역사화 과정에서 사회의 성찰성이 점차 상실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근대화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이해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속물성과 속물 주체의 등장엔 한국전쟁 경험이 미친 영향을 검토해보았다. 사회의 속물화 경향이 일상화되면서 계층적 분화 과정과 맞물려 죄의식과 수치심이 상실되어가는 서로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 사회의 속물화-‘헝그리 정신’과 시민사회의 불가능성」, 『한국학연구』 제32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73-313쪽.

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구술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죽음의 도가니’이자 ‘보복과 학살’의 악순환인 전쟁 경험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이다.⁵ 구체적으로 남한 군경에 의해 잠재적 ‘빨갱이’ 세력을 제거하려던 (실제로는 형무소 재소자나 이감자에서 한센인에 이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학살이기도 했던) 시도들이나 인민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즉결 처분하거나 점령지에서 징집한 의용군을 충알받이로 내세우고 부상자를 방치했던 인민군의 행태, 인민재판에 의한 적대세력 제거보다 더한 학살이 이루어졌던 미군에 의한 무차별적 폭격 등이 폭로되었다.⁶ 전쟁 경험에 대한 기억에서 여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2000년대 이후 구술사 연구방법론(Oral Methodology)을 통해서였다.⁷

이렇게 볼 때, 한국전쟁의 유령들에 대한 관심은 흔적도 기록도 없는 이러한 죽음으로 대표되는 애도되지 않는 전쟁 경험과 전쟁 피해에 대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것은 곧 애도될 수 없는 ‘삶/죽음’, 발화할 수 없는 ‘과거/기억’, 언어화되지 못한 ‘고통/목소리’의 포착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것이다.⁸ 전쟁의 희생을 두

5 함한희, 「구술사가 들려주는 또 하나의 한국전쟁」, 한국구술사학회 편,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7쪽.

6 김경현, 「‘굴’로 간 사람들의 또 다른 역사」, 한국구술사학회 편,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112-123쪽.;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제32권, 한국사학사학회, 2015, 347-354쪽.

7 김귀옥, 「한국전쟁기 여성의 전쟁 의미와 시집살이 경험」, 신동훈 외,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 박이정, 2012, 208쪽.

8 한국전쟁의 유령을 살피고자 할 때, 이 유령은 베트남전쟁의 유령과는 달리 은유적인 의미를 갖는다. 베트남의 유령들은 은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실체로서, 과거에 속하지만 비유적인 방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방식으로 현재에도 지속된다고 믿어지는 존재로서, 권현익은 베트남에서의 유령을 고도로 이질적인 사회를 하나의 전체로 구성하는 매개로 본다. 그가 유령을 언급하면서 조명하고자 하는 바는, 유령이 사회적 삶의 질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유령은 산 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망자가 전쟁을 기억한다는 사실의 증거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폭력적 죽음의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고통은 망각되지 않는 반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전쟁의 원인과 의도는 망각되는 아이러니, 즉 기억의 이런 작동 속에서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어떻게 전쟁 이데올로기의 죽음을 의미하는지를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권현익, 박충환·이창호·홍석준 역,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산지니, 2016, 16-17, 66-67쪽.

고 말하자면, 그 실존을 확인할 수 없는 ‘비가시적인’ 존재와 영역이 헤아릴 수 없
이 많다. 전쟁기에 진영을 막론하고 광범위한 초토화 전술이 채택되었고 그로 인
한 민간인 희생이 막대했음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그러한 희생을 은폐하거나 그
것을 군사 작전상의 필요로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힘을 얻어왔다.⁹ 전쟁기 민간인
학살로 대표되는 희생과 피해 대부분이 총살, 행방불명, 수장 등으로 피해를 입중
할 죽은 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면,¹⁰ 비가시적인 전쟁
피해를 역사적 사실로서 입증하는 작업과 함께 유령의 재현 차원을 넘어선 접근
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유령들에 대한 관심은 역사적 실존에 대한 확인이나 문
학적·문화적 재현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망각되고 억압된 존재들의 흔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령의 자리를 포착하
는 것이 한국전쟁의 유령들에 대한 관심이 가닿아야 할 지점이라면, 그러한 관심
은 그들이 왜 유령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 즉 유령을 만드는 사회문
화적 맥락에 대한 고찰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고찰이야말로 유령들에 대한 관
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보이지 않았거나 배제되었던 것을 주목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망각하거나 보이지 않게 한 ‘접힌 시공간’에 대한 환기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접힌 시공간’에 대한 환기를 통해, 유령의 있
음이 아니라 유령의 ‘자리 없음’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유령을 “비극적 역사의
귀환”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¹¹ 한국전쟁의 유령들에 대한 성찰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식민과 냉전의 복잡한 뒤얽힘이 만들어낸 시공간을 돌아보는 일이자 탈식

9 초토화전술은 방어나 적에게 보복을 가하려는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한 지역을 통과하거나
그 지역에서 철수할 때 적에게 유용할 수도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작전이다. 김귀옥, 「한
국전쟁기 강화도에서의 대량학살사건과 트라우마」, 홍순권 외, 『전쟁과 국가폭력』, 선인,
2012, 18쪽.(김동춘, 「초토화작전-한국전쟁 발발 전후의 좌익 제거」, 『기억을 넘어 화해
로』, 4.3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2008, 112쪽.)

10 강화 지역 피해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이지만, 민간인 피해는 총살이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
과 구타 사망이 많았다. 게다가 바닷가 근처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수장되어 시체
가 유기되었다. 김귀옥, 「한국전쟁기 강화도에서의 대량학살사건과 트라우마」, 홍순권 외,
『전쟁과 국가폭력』, 선인, 2012, 56-58쪽.

11 박찬경 외, 『귀신 간첩 할머니』, 현실문화, 2014, 10쪽.

민과 탈냉전 쪽으로의 논의 진전을 이끌 거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¹²

2 사건으로서의 전쟁, 스펙트럼으로서의 피해

대개 민간인 학살 피해의 경우 국가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사건의 실체 확인이 중요해지며, 이 과정에서 실체에 대한 입증이 피해자의 구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¹³ 전쟁 피해자가 어떤 생애사를 갖고 있던 국가 중심의 기억으로 환원될 때 전쟁 피해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것이 되고 정상성과 중심성을 위해 왜곡되고 변형된다. 개인의 전쟁 피해의 여파는 사실상 누락되어 버리는 것이다. 공식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못한’ 이러한 전쟁 피해를 유해 발굴이나 구술 작업을 통해 가시화할 수 있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 구술을 통해 민간인에게 가해진 전쟁 피해와 전후 삶에서의 장애와 젠더 문제를 고찰한 역사학자 소현숙의 최근 연구는 여성의 피해를 부상과 장애 차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전쟁기 여성 피해를 남성 중심의 사회가 여성에게 할당한 역할에만 한정하지 않는 확장된 이해의 시야를 열어준다.¹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구술사 방법론의 활용을 통해 전쟁 피해를 특정 사건이나 특정한 시기의 손상으로 한정하지 않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생애에 걸친 총괄적 영향의 차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전쟁 피해

12 위의 책, 16-17쪽. 또한 이런 의미에서 유명에 대한 관심은, 서발턴 개념의 수용을 통해 목소리가 없거나 침묵하는 주체를 둘러싼 냉전 지식체계를 문제 삼았던 김원의 작업과도 연결된다. 김원, 『박정희 시대의 유명들-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현실문화, 2011, 69-86쪽.

13 이런 의미에서 그 자체로 역사의 실체를 입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전사자의 유해 발굴과 함께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유해 발굴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큰 것이다. 노용석, 「죽은 자의 몸과 근대성」, 홍순권 외, 『전쟁과 국가폭력』, 선인, 2012, 454-456쪽.

14 소현숙, 「신체에 각인된 전쟁의 성차와 치유: 한국전쟁기 노근리 피해자 구술에서 나타난 장애와 젠더」, 『동방학지』 제197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199-224쪽.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피해 당사자의 노근리 대책 위원회 활동이 민간인 살상 사건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누락된 (고통) 기억을 복원하며, 공식적인 역사 기억으로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피해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음을 포착하게 하는 것이다.

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사건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재고함으로써, 피해를 단발성이 아닌 스펙트럼의 차원 즉 유동적이고 중첩적인 것이자 상호적인 영향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전쟁 피해를 사건화된 피해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인간 존재의 총체적 삶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요청이 전쟁 피해를 실체로서의 몸의 피해로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몸의 피해로 한정할 때, 구술을 통한 당사자의 발화가 아닌 다음과 같은 피해를 포착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유가족 중 11대 독자 오성택 대위를 50년 임진강전투에서 잃은 아버지 오윤정(63, 황해도) 씨 내외는 노령과 병약으로 기거마저 불편하여 오직 하나만인 딸 오성애(23세)의 수입에 의존하여 간신히 삶을 이어가고 있다. 두 아들이 전사하고 단 하나 남은 아들마저 전상을 입어 정신이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등 세 아들을 나란히 바친 어머니 신춘자(60)씨는 살 길이 막연하여 인근 중앙수산장에 나가서 양복단추 다는 일로 두 식구가 연명하고 있으나 늙은 몸으로 남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수입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¹⁵

(...) 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 충남 당진에 있는 시가로 피난 갔으며 이 발소는 없었지만 행상이발로 얻은 수입으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다. 1953년 서울에 돌아와 보니 집은 폭격을 맞아서 없어지고 땅만이 남아 있었다. 이씨는 일선지구가 수입이 좋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돈별이 길을 떠났다. 이씨 부인은 서울에 남아서 식구를 부양하기 위하여 새우젓 장사를 하며 살았다. 남편이 6개월 후 정신이상 상태로 돌아왔다. 증세는 점점 악화하여 가정살림을 부수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해서 때로는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이후 부인도 지나친 구타로 인해서 정신상태도 좀 이상해진 것 같았다. 남편은 일선지구에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다. 부인은 5남매를 거느

15 『한국일보』, 1956.6.7.

리고 동리사람들의 동정과 구제를 받아가면서 약 1년 간 어린이들을 길러오다가 원장의 인도로 서울 부녀자직업보호소에 들어오게 되었다.¹⁶

인용문들은 한편으로 전쟁 피해의 젠더적 측면을 포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¹⁷ 오성에 씨는 전장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였다. 신춘자 씨는 군인이었던 두 아들을 잃고 남은 아들이 전쟁 피해로 정신이상을 얻게 된 후 생활을 위해 양복단추 다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이나 정신이상 상태가 된 제대 군인이 명백한 전쟁 피해자로 불릴 수 있다면, 그들의 여동생이나 어머니의 피해는 무엇이라 불려야 하는가.¹⁸ 그들의 피해는 남성들의 경우와는 어떻게 같거나 다르다고 해야 하는가. 전

16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62쪽 인용문 재인용.

17 인용문에 대한 검토에 앞서, 다시 소현숙의 논문으로 우회해보자. 논문은 역사의 공식적 피해자라는 자리가 확보되는 동안,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해된 서사 속에서는 시각 장애인-여성의 삶(의 고통)이 오히려 소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짚어보게 한다. 전쟁 피해와 장애, 젠더라는 키워드는 동일한 비중으로 피해자의 자기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하기보다, 전쟁 피해-장애X젠더라는 양 축이 비중에 따라 다른 축을 은폐하거나 약화시키는 작동 관계 속에서 그 삶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추후 검토가 요청되는 것이다. 소현숙의 논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공식적인 피해자로 정체화되면서, 시각 장애인-여성으로서 삶의 고통을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성-장애를 스스로 자신의 약점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적 상황을 견뎌야 할 것으로 받아들였던 여성이 자신의 장애를 설명할 언어를 발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소현숙, 앞의 글, 216-221쪽) 그런데 이 보상적 치유는 일견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라기보다, 장애-피해가 공식적인 전쟁 피해의 역사 속에서 그 자리를 마련하면서 생겨난 변화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 변화를 두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전쟁 피해로서 공식화되고 이해 가능한 것이자 논리적으로 전달 가능한 것으로 전환될 때, 그 과정에서 지워진 것은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전쟁 부상으로 인한 것이지만, 피해 구술자의 고단한 삶의 대부분은, 논문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여성으로서의 삶의 고통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위의 글, 212-216쪽). 이 질문은 동아대학교 젠더·어팩트 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연결성의 에틀로지와 신체 연결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2021.12.3.)에서 발표한 소현숙의 발표문 「신체에 각인된 전쟁의 상처와 치유: 한국전쟁기 노근리 피해자 구술에서 나타난 장애와 젠더」에 대한 토론문에 기반해 있으며, 이 글에서는 토론문에서의 질문을 진전시켜보고자 했다.

18 물론 명백한 전쟁 피해자라는 개념이 선명하게 윤곽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 윤곽이

쟁이 끝나고 서울로 귀환해서 남편이 돈벌이를 떠났다가 정신이상 상태로 돌아온 후, 남편의 구타로 부인의 정신상태도 이상해졌다면, 그녀의 피해는 전쟁 피해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하는가. 그녀의 피해를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로만 이해하는 것은 과연 타당하고 적합한가. 장애인 젠더와의 관련 속에서 전쟁 피해를 논의하면서 환기되는 질문들은 과연 전쟁 피해의 젠더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이끈다. 여성의 전쟁 피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하는 동시에 전쟁 피해라는 명명 자체의 젠더적 편향성을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전쟁 피해의 젠더에 대한 질문의 틀레를 확장하자면, 피해에 있어 전장과 민간인의 일상을 분리하는 접근법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인류학자 윤택림은 구술 작업을 통해 전쟁 이후 수복 이전인 인민공화국 시기 여성의 전쟁 체험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여성은 군대에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가고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을 구입했다. 서울 토박이 정화진은 두 오빠가 전쟁 동안 행방불명이 되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서울 공덕동 집으로 일찍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미군부대에 다니는 사람의 옷가지를 세탁해주었는데, 그녀는 그로부터 미군부대의 물품을 받아 시장에 내다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월남인 정순희도 남편이 피신하는 동안 세검정에서 자두를 따서 팔아 가족을 먹여 살렸다.”¹⁹ 군대에 동원되지 않은 여성들이 피난을 떠나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생계를 책임지거나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거리를 찾았다. 남성들이 피신을 떠나거나 행방불명된 자리를 여성들이 지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군인과 민간인의 전쟁 피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

세분된 자리에서 군인과 민간인의 경험이 동일하다거나 차이를 무화해도 좋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분리해서 이해해도 좋을 그런 경험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인류학자 로이 그린커가 역사학자 피

젠더로만 날카롭게 구분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19 윤택림,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 한국구술사학회 편,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44-45쪽.

터 바람의 논의를 빌려 강조한 것처럼, 전쟁은 민간인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엮여서’ 사회구조를 이루는 사건이다. 급작스럽게 닥친 재난이나 혼란스러운 격동으로만 여기기 쉽지만, 사회의 정상적 기능과 별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차별주의나 인종주의,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의 문제적 일면들이 좀더 뚜렷해지는 시간이다.²⁰ 그러한 구분을 틀 지운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인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가시화된 것만큼이나 많은 부분 비가시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쟁 피해는 사라지거나 망각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이된 것이자 유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¹

3 전쟁 피해의 젠더와 여성의 자리

전쟁 피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확장은 전쟁 경험을 다루는 소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가. 이북 출신 남성의 외로운 삶에 대한 회한을 담고 있는 윤홍길의 소설 「무제」(1978)에서 고모도 고모의 오빠인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금에 남남지간인 화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고모부의 곤란한 처지는 이북 출신의 혈혈단신이라는 점에서 온다. 자수 간첩으로 고모와 만나 아들을 낳고 살았지만,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을 잊지 못했던 그는 반공 강연회 등에 연사로 동원되면서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거둬 준 성금을 받아 생계가 어렵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사기 및 취직 사기에 휘말렸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문란한 생활을 지속했으며,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문제아가 된 아들은 “뭇 뺨다고 간첩은 되고 뭇 뺨다고 삼팔선은 넘었느냐고”²² 몰아세우며 구타를 일삼았고 그를 견디지 못한 아내는 결국 달아나버린다. 흥미롭게도 “고모부와 마찬가지로” 이북 출

20 로이 리처드 그린커, 정해영 역, 『정상은 없다』, 메멘토, 2022, 131쪽.

21 동시에 피해는 계급적, 젠더적, 인종적 ...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의 재규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해야 한다. 가령, 전쟁과 민간인의 전쟁 경험과 피해에 대한 이해는 젠더적 인식에 입각한 구분(남성이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며 어린이, 노인과 함께 여성이 민간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식의 구분)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것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정상성/비정상성의 구분과 깊이 연관된다.

22 윤홍길, 「무제」, 『장마』, 민음사, 1980(1973), 258쪽.

신 홀아비인 한 편집자의 자살이 연고 없는 죽음으로 처리되어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 사연을 겹쳐둠으로써, 화자를 통해 소설이 드러내는 고모부에 대한 정조는 연민에 가깝다. 소설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가족 해체의 고통은 개인의 차원에서 극복되거나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그리하여 고모부는 전쟁과 분단이 만들어 낸 비극의 희생자로 다루어진다.

1950년대까지도 대개 고향이나 연고지로 보내지는 간첩이 많았음을 환기하자면, 고모부의 월남이 충분히 납득되지는 않지만, 소설에서 이보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징후적으로 읽히는 고모에 대한 서술이다. 자수 간첩인 고모부의 사회적 안착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전부터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소문난 고모와의 만남은 남한에서의 그의 출신이 이북에서와 같은 가족을 꾸릴 수 없는 조건임을 전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아내의 행실을 의심하고 자신의 자식임을 의심하면서 아들을 학대했음에도 고모부와의 만남은 고모의 선택으로 치부되고 그녀의 불행은 동정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소문으로만 떠도는 고모의 과거 행적은 혼기를 놓치고 술장사를 한 여자로, 무엇보다 화자인 조카의 집에 아들을 맡기고 행방을 감추어버린 비정한 여자로 요약된다. 혼기를 놓친 정숙하지 않은 여성이자 모성 부재의 존재인 고모 자신의 목소리가 소설 어디에도 없으며 소문으로만 등장하여 결국 행방불명으로 처리되는 것과 달리 자수 간첩인 고모부가 남한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절망은 소설의 전면에서 다루어진다.

왜 그녀는 소문으로만 남는 존재가 되어야 했는가. 소설 내부로만 한정되지 않는 이 여성의 자리가 갖는 의미는 보복과 학살의 악순환이었던 전쟁 경험을 다른 윤희길의 여타 소설과의 비교 속에서 좀더 선명해진다. 윤희길의 소설 「장마」(1973)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1978)는 1950년 9·28 수복 즈음을 배경으로 1950년 6월부터 3개월여 시간 동안 마을 공동체가 겪은 전쟁 경험을 다룬다.²³ 이념적 대결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던 습격과 학살이 마을공동체에 야기한 비극을 포착하는 「장마」(1973)에서 그 비극은 친족 체계의 복원을 통해 회복 가

23 「장마」에서는 국군으로 입대했던 외삼촌의 전사통지서를 받았고, 소식을 몰라 가족들의 애를 태웠던 삼촌은 총을 두 자루나 찬 채 웃음을 잃고 거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외할머니의 기척에 놀라 도망간 후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구렁이로 돌아온(돌아왔다고 믿는) 삼촌을 애도하는 외할머니를 통해 가족 내 상흔은 봉합된다.

능한 것으로 다루어진다.²⁴ 연작 소설처럼 읽히는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도 긴 장마 끝에 뜨는 무지개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화해와 통합에의 열망을 만날 수 있다. ‘빨갱이’의 습격으로 가족이 몰살당한 후 혼자 살아남은 당숙모가 ‘빨갱이’ 가족의 살아남은 아이를 키워냈고, 출세한 그 아이가 마을로 돌아와 문중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소설은 “벌거벗은 미친년의 몰골”²⁵이 아니고서는 ‘빨갱이’ 자식의 목숨을 지켜내기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지켜낸 목숨이라면 1970년대의 한국사회가 포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나아가 포용해도 좋지 않은가를 던지시 제안하는 것처럼 읽힌다.

전쟁 경험을 가족 복원 프로젝트로서 애도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비판적 독해는 1970년대에 등장한 전쟁 경험 관련 소설들에 대한 재독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앞서 언급했던 전쟁 경험과 피해의 의미를 둘러싼 맥락적 변화는 이러한 재독의 필요성을 요청하게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가령, 전쟁 경험에 대한 소설적

24 반공의식을 거저에 깔고 있으면서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 불러온 낙관적 전망을 소설적으로 선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을 비롯한 대규모 간첩 조작 사건이 말해주듯 곧 퇴색할 것이었다 해도, ‘빨갱이’와 그 후손에 대한 포용과 화해를 말한다는 것의 의미가 적지는 않다. 문제인 정권기에 강렬하게 경험한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색되고 있는 현실 정세 속에서도 그 의미를 음미할 가치는 있는 것이다. 조선희, 「윤홍길의 「장마」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 나타난 분단 극복의 양상」, 『개신어문연구』 제20호, 개신어문학회, 2003, 781-809쪽.; 김병덕, 「불모의 현실과 여성적 화해의 세계-윤홍길론」, 『비평문학』 제3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35-59쪽.; 박성은, 「윤홍길 소설에 나타난 분단 트라우마의 증상과 사회적 치유-「장마」,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낮」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80권,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75-111쪽.

25 윤홍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창작과비평사, 1979, 38쪽. “건지산 날망이 시커먼 구름자락으로 칭칭 감길 때면 으레 맨발로 뛰어나와 동네 고샅길을 중형무진 치달다가 다 허물어져 가는 외딴집 토담에 등을 기대고 펍석 주저앉아 젖몸살로 텅 텅 불은 암소의 그것만큼이나 덜렁한 젖통을 적삼 사이로 드러낸 채 허공에 굴리던 그 초점 잃은 당숙모의 눈…… 동네 조무래기들이 각다귀 떼처럼 덤벼들어 젖통을 물땀충삼고 보릿대로 아랫도리를 꼭꼭 들쭈셔도 그저 잠자코 내버려두던 그 혼 달이나 버린 늘편한 망연자실……”(38-39쪽) 미친년의 몰골이 이렇게 벌거벗은 여성의 몸으로 기술된다는 점은 흥미로운데, 젖먹이 아이를 잃은 어미의 몸에 성적 누양스를 실어 기술하는 이러한 방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다는 점까지를 포함하여, 미친년의 형상을 둘러싸고 전쟁과 여성의 자리에 대한 논의와는 각도를 달리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애도 작업이 본격화된 1970년대에 등장한 소설들과 전쟁 경험의 의미화를 통한 당대의 국가사회적 요청이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새롭게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박완서와 윤홍길 등으로 대표되는 소설들에서 1970년대적 맥락 속에서 재규정되고 있는 전쟁 경험에 대한 상대화 작업이 필요해진 것이다.

반공주의와 가족주의의 결합이라는 시선적 경향성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시선이 누락한 존재나 시공간에 대한 복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해야 한다. 당대적 맥락에 대한 상대화 독법이 시작될 때에야 비로소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유명들에 대한 관심이 전쟁 경험을 애도하면서 당대적 맥락에서 누락하거나 배제했던 존재들을 조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누락과 배제의 구조적 맥락을 가시화하는 데에까지 가닿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적 관점 확장을 통해 반공주의와 결합한 가부장제적 가족주의 재건의 투사처럼 보이기도 하는 윤홍길 소설의 여성들과 체제 바깥으로 배제되는 여성들의 기능 자체에 대한 비판적 다시 읽기가 가능해진다고 할 것이다. 미친년의 복원이 아니라 풍문으로 떠도는 여자와 미친년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질문에 가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쟁을 다룬 윤홍길의 소설 속 여성의 자리에 대한 검토는, 전쟁 경험을 애도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곳의 한국사회의 일면이 여성의 배치를 통해 구축되었음을 새삼 통찰하게 한다고 하겠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수행하는 가족 복원 프로젝트는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습격과 학살이 소설의 후경으로 밀려나 있는 풍경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장마」에서 삼촌이나 그가 속한 빨치산 무리들이 행했을 학살이 풍문으로 떠돌고,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 학살의 현장은 먼 곳에서 귀 밝은 사람에게 들리는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가는 비명과 신음으로만 포착된다. 아이의 눈을 통해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학살의 전조인 타오르는 방화불로 이해되는 (연쇄 보복을 부르는) 학살은 심지어 유치하고 어리석은 놀이로 거리감 있게 포착된다. 이에 반해 작은 아버지를 죽인 빨갱이의 자식이 작은 아버지의 호적에 오른다면 자기 호적을 파버리겠다던 동식 형으로 대표되는 문증을 ‘온몸으로’ 지켜내는 이들은 학살과 보복을 일삼던 시기의 전쟁 피해를 봉합하고 수습하는 존재로서 기능한 「장마」의 할머니들과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의 당숙모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게 아니었다. 대번에 기고만장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것 보라고,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고, 우리 순철이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고, 거지반 고향을 지르듯 말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할머니는 어린애처럼 영영 소리내어 울면서, 합장한 두 손바닥을 붙이 나게 비벼대면서 샘솟듯 흘러내리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늙고 추한 얼굴을 들어 꾸벅꾸벅 수없이 큰절을 해가면서, 하늘에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신령님께 감사하고 조상님네들께 감사하고 터줏구신에게 감사하면서 번갈아 방바닥과 천장과 사면 벽을 향하여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뽕뽕이질을 치면서 미쳐 돌아가는 것이었다.²⁶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면서 큰당숙네 집안으로부터 물이 새듯이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더니만 작은당숙모가 느닷없이 베개를 품안에 꼭 끌어안고는 마당을 가로질러 잣간과 변소를 겸한 칩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아무리 괜찮다고 어서 나오라고 밖에서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로 버티며 나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였다. 남편과 자식들이 불에 타 죽던 날 밤에 당숙모는 칩간 속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심한 설사가 나서 때마침 똥통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빨치산들이 들이닥치는 모양을 보았다는 것이었다.²⁷

「장마」의 가족들은 삼촌의 무사귀환을 “도대체 가망이 없”는 “하나의 신앙”²⁸에 가까운 것으로, 간절하게 기원하는 할머니의 행위를 “천정과 사면 벽을 향하여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뽕뽕이질을 치면서” 미쳐 날뛰는 흡사 미친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의 가족들은 남편과 자식들이 불에 타 죽던 날 심한 설사로 화장실에 있었던 당숙모가 똥통에 몸을 던

26 윤홍길, 「장마」, 『장마』, 민음사, 1980, 46-47쪽.

27 윤홍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창작과비평사, 1979, 12-13쪽.

28 윤홍길, 「장마」, 『장마』, 민음사, 1980, 57쪽.

저 목숨을 부지한 상황을 절체절명의 비극이 아니라 뚝뚝에 빠진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무엇보다 그녀를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정신이상을 겪는 존재로 받아들인다. 흥미롭게도 동생의 귀환이 거의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어머니의 주장을 열심히 따르는 척하는 괴로움을 토로하는 아버지(「장마」)나 빨갱이의 자식인 ‘동근이’를 떠올리자면 뚝뚝에 몸을 던져 혼자 살아남은 당숙모를 희화화한 채 떠올리게 되는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의 화자를 통해 엿볼 수 있듯, 가문의 중심에 놓인 남성들은 그 화해를 믿지 않거나 그녀들의 ‘온몸으로’의 노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연쇄 학살로 파괴된 가족의 재건은 그녀들의 광기를 빌려서나 간신히 가능한 것에 가깝지만, 소설에서 그녀들의 광기는 미신이나 모성에 근거한 것으로 즉 여성의 일면으로서 치부된다. 가문의 재건을 위한 요소가 아닌 채로 그런 의미에서 가부장제적 가족주의의 집합 역할을 떠맡은 여성들의 광기는 전쟁 피해의 범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전쟁 피해로서의 광기의 젠더와 관련하여 그녀들의 광기를 군인으로 전투에 참가했다 정상성을 상실한 강용준의 소설 「광인일기」의 조순덕 전(前)대위의 그것과 대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네가 제대한 것은 앞서서도 말했지만 다음달 초순이었다. 역치(閾値)를 넘어선 패닉 상태의 이상성(理想性) 장기화라든가, 여러 차례 체험한 외과적(外科的) 조치가 초래한 외상성 심신장애(外傷性心身障害), 또는 가상할 수 있는 모종의 사망공포나 계속적인 강한 스트레스 상태 하에서의 방위기제의 붕괴 등, 얼핏 보기에다 굉장히 생경한 낱말들이었으나, 아직 인터뷰의 과정도 밟지 않은 일개 내과의학도에 불과한 장대위의 이러한 진단 내용이 그대로 상급병원에서 접수된 것은 어쨌든 자네가 일종의 정신기능 상실자라는 데는 확신이 간 탓이 아니었을까 싶다.

하여간 자네가 옷을 벗은 것은 그 일 뒤에 부쩍 더 심해진 자네의 그 여러 가지 증세들 때문이었다. 물론 그만 정도의 기합이나 충격으로 정신이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인을 기준으로 한 얘기이고, 이미 어느 한계선까지는 도달해 있는 자네를 두고는

사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²⁹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던 조대위는 무자비하게 가학적인 민대령이 기함으로 강제한 권투 대결 중에 쓰러졌고 의무대에 인계되었다. 전투 중의 부상으로 뇌수술을 받은 적 있는 조순덕은 “의식의 혼미상태에서 수족의 마비를 일으키는 등 전혀 예기치도 않은 증세를 나타내어” 제대를 하게 된 것이다. 정신이상이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조순덕의 삶의 궤도를 이해하려는 군인 동료 최대위의 추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소설은 화랑무공훈장을 2개나 받은 예비역 장교 조순덕의 정신이상이 신체적 손상과 함께 다루어야 할 명백한 전쟁 피해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삶의 조건까지가 그를 신체적 정신적 발작으로 이끌었음을 강조한다. 한국전쟁을 전투에 투입되었던 군인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점 자체로서 소설 「광인일기」가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전쟁 피해의 재현에 있어 조순덕 장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단지 한 개인에게 가해진 피할 수 없는 불운 이상이라는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앞서 스펙트럼으로서의 피해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청하면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전쟁 피해가 피해자의 이후의 삶에 미친 총체적 영향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조순덕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정상성 바깥으로 그를 떠밀게 된 힘은 가깝게는 민대령과 김만수에게서 왔다.³⁰ 가학적 폭력을 가했고 정신적 이상이 심각한 증상으로서 발현되는 임계치까지 조순덕을 밀어붙인 사람이 민대령이라면, 훈장을 여럿 받은 전쟁 영웅을 국가의 배신자의 자리로 밀어붙인 이는 간첩 김만수이다. 민대령의 전쟁 경험이 부친의 죽음이라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차원의 피해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전남 지구 이북 고정간첩단 책임자였던 김만수의

29 강용준, 「광인일기」, 『광인일기』, 예문당, 1974, 43쪽.

30 “군기를 가장한 민 대령의 가학적인 공격성은 대관절 어디서부터 연유하는가. 그보다 자네 조순덕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이 되는가.”(위의 책, 50쪽) 이 질문을 좀더 진전시켜보자면 전쟁 피해의 내부에 가해와 피해의 구도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가해와 피해의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짚어보게 된다.

경우에는 이념적 대결 속에서의 인생 유전이라는 복합적 맥락 속에서 전쟁 피해를 입었다고 해야 하는데,³¹ 소설을 통해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변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순덕을 포함한 그들 모두가 겪은 전쟁 경험이 가해-피해의 중층적 함의를 품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³²

이런 점에서 전쟁 피해와 관련하여 이 소설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은 가해-피해의 구체적인 사연들 자체라기보다 사연들 사이의 연결이라고 해야 한다. 전쟁 피해에 대한 재현이 대개 폭력이나 고통과 같은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비춰보자면, 전쟁 피해를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손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손상들의 연계성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소설 「광인일기」가 다루고 있는 전쟁 피해는 좀더 주목되어도 좋을 것이다. 베트남전쟁의 상흔을 말할 때 전쟁 공포와 정신질환을 언급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면, 공히 국제전이자 내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에도, 한국전쟁이 야기한 트라우마에 대한 검토는 드문 편이다. 소설 「광인일기」는 전쟁이라는 폭력의 경험이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서 내내 유행처럼 다른 증상들로 발현되면서 전이된다는 것을 포착한다. 최대위가 독자를 향해 던지듯 내뱉는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여 그 전쟁의 포화와 결사대와 영하 30도의 혹한과 시취와 피비린내 나는 살상의 순간순간

31 전남 지구 이북 고정간첩단 책임자였던 듯싶은 김만수라는 사람은 원래 전남 영광 출신으로,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스물두 살이 되던 1942년에는 멀리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까지 굴러가서 그곳 어업조합의 잡역부로 종사하였다 한다. 사내가 이북 노동당에 입당한 것은 해방 다음해인 46년 3월로 사내는 열성분자로서 당에 충실하였는데, 전쟁이 끝나던 53년 8월에는 이북 중앙당에 소환되어 밀봉교육을 받았고, 다음해 6월에는 출생지인 영광에 대남 간첩으로 남파되었다. 위의 책, 58쪽.

32 “예비역 장교 북괴(北傀) 고정 간첩단(間諜團)과 접선: 이것이 어느 일간지의 3면에 나타난 자네에 관한 기사의 제목이었다. 원체 기사는 짝막한 것이고 규격화된 것이라 처음 나는 그저 그런가보다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겼었다. 문맥으로 보아 무슨 고정간첩단인가 하는 것에 예비역 장교 하나가 걸려든 모양이지만, 겨우 2단 내리단위로 앞에 뽑아 놓은 유도기사 하나만으로도 이미 사건 자체가 너무 낡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북괴가 간첩을 내려보낸 다든가 어느 쓸개 빠진 예비역 장교 하나가 놈들의 투망(投網)에 걸려들었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런 기사 중의 하나거니만 생각했던 것이다. 더욱이 1·21 사태의 여파가 아직 채 가시기 전이어서 겨우 3면의 2단짜리 간첩기사 정도는 숫제 눈에 띄지 않을 그런 때이기도 하였다.” 위의 책, 57쪽.

을 극복해냈는가”³³는 역설적으로 그것의 극복 불가능성과 트라우마로의 전이를 환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기를 통해 가부장제적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여성들의 자리 배치로 다시 돌아와 보면, 군인의 전쟁 피해를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확대해서 정신이상 뿐 아니라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나 결국 자살을 하고 마는 비극, 즉 전쟁 폭력의 비극적 피해를 ‘총체적으로’ 포착하는 자리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다루어지거나 유령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광인일기」에서 조순덕의 아내를 태어난 아이가 죽고 이혼을 한 후 환락의 세계로 빠져든 존재로 처리하는 방식은 전쟁 피해를 인간의 삶의 총체적 맥락 속에서 살펴야 한다는 요청이 젠더 비판적 인식을 통해 겹의 성찰적 시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새삼 시사한다고 하겠다.

4 생략된 시간과 누락된 노동

박완서의 단편소설 「돌아온 땅」(1977)에는 월북한 삼촌이라는 유령이 등장한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없는 존재와 다르지 않았던 삼촌이 느닷없이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미래를 지워버리게 된 사정에 대해 화자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을 토로한다. 월북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곤란은 “아무도” 도울 수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지원에 응시했던 아들이 신원조회에 걸려 결국 낙방을 했고, 십년 가까이 사귀던 청년과 결혼해서 해외유학 길에 동반하려 했던 딸의 계획이 신원조회로 차질을 빚게 된다. 남편 없는 여성 가장으로 “소년과부”³⁴였던 소설의 화자는 아이들을 이끌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실상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날조해왔다. 남편의 동생에 대해서는 날조를 넘어 철저한 망각에 부쳤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화자가 이유나 사연을 불문하고 남편의 동생에 대한 기억을 철저하게 망각하고자 한 것은 “북쪽에 살아 있는 자의 망령”(161쪽) 즉 살아 있는 유령이었던 그가 남한에서는 ‘유

33 위의 책, 70쪽.

34 박완서, 「돌아온 땅」,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1999, 166쪽.

령의 자리도 허락되지 않는' 유명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소설은 “덕망 있고 용기 있는 반공지도자”(162쪽)였던 아버지보다 월북한 삼촌이 아이들의 앞날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 사회에 퍼져 있는 “빨갱이” 공포증을 확인시킨다. 아이러니하게도 반공투사의 자녀로서 증명되기를 바라며 고향을 방문한 딸은 아버지의 죽음이나 삼촌의 월북이 신념에 기반한 이념적 행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³⁵ 아버지와 삼촌의 사건에 대해 두 경우를 혼동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이념이나 인간성이 서로 뚜렷이 다른 것”(168쪽)도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일이 한국전쟁의 비극에 관한 한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³⁶

빨갱이 가족의 죽음을 다룬 박완서의 소설 「부처님 근처」(1973)에서도 작가가 강조하는 것은 애도되지 못한 유명이 현실을 사는 남은 이들의 일상을 잠식해왔다는 은폐된 진실이다.³⁷ 전쟁 이전부터 좌익운동에 가담하여 속을 썩이

35 신념 있는 민주주의 투사도 덕망 높은 농촌지도자도 아니었고, 그저 동네에서 제일 잘사는 집 맏아들이었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직장 없이 놓고 있던 사람으로 인민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반동의 본보기가 되어 사형당한다. 겁이 많은 소년이었던 삼촌은 형이 총살당하자 남들이 짐작하는 형과의 불화를 적대의 관계로까지 인식시켜가며 월북하게 된 것이다.

36 가족 내 월북인의 존재는 공포임이 분명하다. 민간인 학살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부역혐의라고 할 때, 이 ‘부역혐의’에는 피해자 자신이 부역을 한 경우뿐 아니라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의 부역혐의에 의한 피해도 해당된다. 가족 중 월북인이 존재할 경우에도 피해를 피하기 쉽지 않았다. (김귀옥, 「한국전쟁기 강화도에서의 대량학살사건과 트라우마」, 홍순권 외, 『전쟁과 국가폭력』, 선인, 2012, 58-59쪽.) 월북가족이 대거 공개적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0년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을 때로, 연좌제가 공식적으로 폐기된 2004년 이전까지 연좌제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공무원이나 교직 채용에서 배제되었다. 신원조회 때문에 여권 신청도 쉽지 않아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않았다. (조은, 「분단의 긴 그림자-월북가족 이야기」, 한국구술사학회 편,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213쪽.)

37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삼켰으니까. 나는 망령들을 내 내부에 가뒀으니까. 나의 망령들은 언젠가는 토해내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는 체증이 되어 내 내부의 한가운데에 가로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차차 나는 더 묘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망령을 가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망령에게 갇힌 꼴이라는 것을, 나는 망령에게 감함으로써 온갖 사는 즐거움, 세상 아름다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당하고 있다는 것을.” 박완서, 「부처님 근처」, 『부

던 오빠는 총에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고, 숨어 있던 친구의 아들을 밀고하기까지 했던 아버지는 원한을 산 사람들의 고발로 잡혀갔다 송장에 가까운 모습으로 돌아왔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빨갱이로서”³⁸ 죽은 오빠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어머니와 나에 의해 “행방불명”(107쪽)으로 처리된다. 살아남은 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피투성이의 유령”(109쪽)도 되지 못한 망각 속에 봉인하고자 한 망령은 오히려 그들을 망령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삼킬 수도 애도할 수도 없는 참혹한 경험으로 오랫동안 환기되었지만 흥미롭게도 박완서의 소설에서 전쟁기로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간은 대개 풍문처럼 다루어지거나 생략되어 있다. 「부처님 근처」가 생략한 시간, 빨갱이가족 혹은 행방불명 처리된 가족의 남은 일원으로서 살았던 시간은 아마도 『나목』(1970)이나 「카메라와 워커」에서처럼 미군 부대 하우스걸로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나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 시간의 재현이나 복원과 관련해서 그나마 좀더 많은 단서는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4)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부끄러움을 상실하고 돈의 논리에 매이게 된 현실에 대한 박완서의 비판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서 부끄러움을 상실한 기원적 사건으로서 한국전쟁을 들고 한국전쟁기를 호출하게 한다. 소설은 전쟁 이후 피난민이 점점 늘어나 원주민의 배에 이르게 된 마을의 변화를 짚는다. 마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이후로 “LAUNDRY니 D. P.니”³⁹하는 간판의 집들이 생겨나고, 느글느글한 화냥기로 표현된 “수상쩍은 에로티시즘”(314쪽)이 마을을 떠돌며 이상한 생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풍경이 소상하게 그려진다. 불과마가 유행하고 화장법이 빠르게 보급되는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양공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동네는 기지촌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작가에 의해 그러한 변화는 “항구에 정박한 큰 선박에서 폐유가 흘러나와 항구의 해수를 오염시키듯”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부끄러움도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포착된다.

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1999, 110쪽.

38 위의 글, 107쪽.

39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1999, 314쪽.

“이년아, 똑똑히 봐둬라. 이 인정머리 없는 독한 년아. 이 에미 꼬락서니를 봐두란 말이다. 어디 양갈보 짓이라도 해먹겠나. 어느 눈먼 양키라도 댘벼야 해먹지. 아무리 해먹고 싶어도 이년아, 양갈보 짓을 어떻게 혼자 해먹니. 우리 식군 다 굶어 죽었다. 죽었어. 이 독살스러운 년아, 이 도도한 년아. 한강물에 배 떠나간 자국 있다던? 이 같잖은 년아.”⁴⁰

그 시절 풍경의 회상 속에서 작가의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은 딸에게 양갈보짓을 시키지 못해 안달이 난 어머니로 향해 있다. “그런 여자를 어머니로 가진” 자신이 “부끄럽다는 사치스러운 감정”(317쪽.)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를 자조하듯 고백한다. 피난을 떠났거나 파괴된 도시로 귀환해서, 혹은 남성 부재의 상황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여성의 전쟁 피해라는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전쟁이 여성에게 가한 젠더폭력이 성적인 것으로만 한정되어도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전쟁 피해와 관련해서 박완서 소설을 재독하게 만드는 지점은 여성의 전쟁 피해라고 불러야 할 그 시간이 소설에서 대개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전쟁 경험을 다룬 박완서 소설들은 전쟁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여성 생존의 시간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의 화자가 그러하듯, 결혼 적령기에 결혼을 통해 그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4)의 화자가 그러하듯, 안정된 결혼 생활을 흠집 내는 죄의식으로 그려진다. 1984년 출간된 소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가 당해 출간된 권정생의 『몽실 언니』와 마찬가지로 전쟁고아인 여성들의 성장과 식모살이로 점철된 여성 노동의 면모를 부각한 점은 주목할 만한데, 전쟁기 성인 여성들의 경험을 다룬 박완서의 소설에서 어머니들의 그악스러움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었는지, 어머니들의 이후의 삶을 포함하여 남성이 부재하는 빈곤한 현실에 경제활동 경험이 없었던 다수의 여성들이 어떻게 적응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여성

40 위의 글, 316-317쪽.

들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서 간신히 포착되었듯 가부장제적 시선에 의한 “화냥기”로나 포착되는 것이다. 아니 반대로 이러한 포착은 전쟁 피해를 둘러싼 여성의 시간에 대한 박완서 소설의 서사적 억압과 누락의 장면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⁴¹

전쟁 경험에 대한 서사적 기억을 젠더적 차원에서 재고한다고 할 때, 그것이 1970년대 소설에 대한 재평가만을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쟁의 사회적 상흔을 ‘총체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소설 장르로 한정되지 않는 구술적 성격의 다양한 서사에 대한 관심으로의 시선 확장이 요청된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봉인되지 않은 채 전쟁 경험이 여성의 생애에 미친 영향을 밀착해서 다루는 김금숙의 만화 『기다림』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김금숙의 『기다림』은 이산가족을 중심으로⁴² 한국전쟁의 사회적 상흔을 다루며 그 경험을 70년의 기다림으로 의미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산 자체라기보다 젠더적 차원에서 이산에 접근한다는 점, 무엇보다 전쟁을 한 여성의 생애 전체에 걸친 경험으로 포착한다는 점에서이다. 『기다림』의 인물들이 경험한 전쟁은 피난길과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이어진 이산 경험과 다르지 않았다.⁴³ 1950년 12월 23일 홍남부두를 떠난 배가 12월 24일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41 물론 박완서 작가의 시야적 한계로서 다루어질 수 없으며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 한국전쟁에 대한 1970년대적 애도의 맥락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영역이다. 그럼에도 박완서 소설이 가부장제적 가족주의를 강화하게 하는 여성혐오의 면모를 서사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이후 섬세한 독법을 거쳐 숙고해야 할 것이다.

42 한국현대사에서 이산가족의 모습이 시기마다 드러나는 양상은 달랐다. 예컨대, 1950~60년대에 전쟁기 ‘납북자’ 가족을 가리키던 이산가족은 1980년대 이후 ‘월남인’을 가리키게 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003년 이산가족 상봉인으로 납북인, 국군포로, ‘납북어부’ 등도 포함되었다. 김귀옥 외,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2008, 50쪽.

43 그들의 전쟁 체험은, 우선적으로는 전쟁 발발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피난민들의 입을 통해서였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계절 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시공간에서 피난민을 통한 풍문으로 전쟁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런 이후에도 전쟁을 실감하게 되는 것은 피난길에 만난 무차별적 폭격을 통해서였다. 전쟁의 참혹함은 피난길에서 만난 다친 사람과 죽은 시체,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한 상황에서 누구랄 것도 없이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참혹한 모든 것에 무덤덤해져서 외면하는 상황을 통해 몸에 새겨진다.

입항이 거절되자 12월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입항을 하게 된다. 그렇게 남한의 땅을 밟으며 시작된 피난살이는 이산의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긴 기다림의 시작이자 그 자체로 통일을 기다리는 시간,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림을 위한 생존의 시간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남과 북으로 흩어진 여느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떠난 피난길에서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게 된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 가족들의 이야기, 북한에서 피난을 떠났던 두 가족이 남한에서 ‘한시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이야기를 잠정적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딸(작가)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작품 『기다림』은 ‘기다림’을 한 여성의 신체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으로,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눈, 굽은 허리, 들고 있는 수저가 흔들릴 정도의 손으로 가시화한다. 한국전쟁의 경험을 개인들의 기억이나 삶 차원의 고통으로 복원하며 무엇보다 단속적이고 일시적인 피해가 아니라 여성의 삶 차원에서 지속되고 누적되는 고통으로서 포착하는 것이다.

통일이 되면 이산 이전의 남편과 아내를 찾아가겠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70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시적’ 부부로 지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한시적’ 가족의 큰아들을 가장 먼저 챙기는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인가.⁴⁴ 북한에 두고 온 아들에 대한 떨쳐지지 않는 사랑이라거

44 “-우리 동생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늙으면 얼굴이 변하잖아. / -그래도 피는 못 속여. 나는 우리 상일이 알아볼 수 있어. / -친구야, 알아보면야 좋겠지만 / -그럼 알아볼 수 있지. / -이제 친구 아들도 70이 넘었을텐데 어떻게 알아봐? / -왜 못알아봐? / -친구는 동생을 못 알아봐도 나는 우리 아들 알아봐. 알았어? / -세월이 암만 많이 흘러도 나는 우리 아들 알아볼 수 있어.”(김금숙, 『기다림』, 딸기책방, 2020, 48-49쪽.) “처음엔 섭섭했다. 섭섭한 단계가 지나자 미웠다. 그 다음엔 그걸 받는 오빠와 새언니에게 화가 났다. / 또 그다음엔 이해하려고 했다. 당신이 낳은 민혜 언니보다 가슴으로 낳은 큰오빠를 챙기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 -오빠에 대한 엄마의 집착은 책임감 때문이야?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보상 심리야? / 친엄마 없이 자란 큰오빠가 얼마나 가엾고 불쌍했으면 저러랴 싶었다. 엄마 배 속으로 낳은 자식 아니라고 오빠가 작은 일에도 섭섭해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다 싶었다. / 그것도 아니면 잃어버린 자식이 엄마와 같이 착한 새엄마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머리로는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은 그제 안 되었다. 내 마음을 포기하기로 했다. 나를 위해서였다. 엄마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위의 책, 237쪽.)

나 가부장제에 기반한 모성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결혼과 전쟁 이전의 시간에 대한 어머니(귀자)의 기억이 여성으로서 겪은 차별로 의미화 되고 남자 형제에게는 쌀밥을 자신에게는 조밥을 먹이던 기억과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온 오빠와 남동생과 달리 여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그녀의 삶은 왜 북한에 두고 온 아들과 ‘한시적’ 남편의 (북쪽 아내 사이에서 난) 아들에 대한 꿀을 수 없는 애정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기다림』에서 결혼이나 이산의 어느 대목에서도 자신의 의지나 열망이 부여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좀더 노골적인 차별 속에서 성장해야 했던 빈곤층의 여성인 그녀가 ‘한시적’ 가족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가 남편의 아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⁴⁵ 불균질한 이 삶의 여러 층위를 읽어내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김금숙의 『기다림』을 통해 전쟁 피해의 젠더에 대한 질문은 전쟁을 경험한 삶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삶에 전쟁이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로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끝나지 않는 전쟁

한국전쟁의 유령들에 대한 관심이 애도될 수 없는 ‘삶/죽음’, 발화할 수 없는 ‘과거/기억’, 언어화되지 못한 ‘고통/목소리’의 포착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때, 이

45 한국전쟁의 결과로서 남북한 분단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간첩이라면 남북한의 이념적 체제 단속을 위해 만들어내는 것이 ‘간첩 조작 사건’이었음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은 전쟁 피해의 범주에서 얼마나 먼 곳에 놓여 있는 것일까.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기록한 은유 작가의 『폭력과 존엄 사이』에 의하면, 피해자 박순애 씨를 두고 정리한 “여자로 태어났고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렸고 간첩으로 몰렸고 집도 절도 없는 무연고 독거노인이 되었다”(은유, 『폭력과 존엄 사이』, 오월의봄, 2016, 99-100쪽.)라는 요약의 말이나 “나를 왜 이렇게 간첩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랬어. 근데 광주교도소에서 징역을 하는데 5·18이 나서 막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데? 대학생들이 와서 한방에 있으면 애기를 해줘. 이화여대생 개가 하는 말이, 간첩만 잡았다 하면 할머니들이라고 하더니 와보니까 이 할머니들이라고. 어찌 간첩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만 잡힌다냐 했더니 간첩이다 억울한 할머니들이다 그거여”(96쪽)라는 그 자신의 말처럼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된 이들은 대개 배제되고 소외된 존재들인 사회적 약자였다. 전쟁의 여파로서의 이산과 간첩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관심이 소수자와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유령이라는 말이 환기하듯, 애도될 수 없으며 망각되지도 않은 전쟁 경험 혹은 전쟁 피해가 시간을 관통하여 사라지지 않고 종종 출몰하며 지금 이곳의 현실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 사회의 “규범” 바깥에 존재하는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외국으로 보내졌는데, 전쟁 이후 그것은 관행을 넘어 제도가 되어버렸다.⁴⁶ 전쟁기에 시작된 혼혈아 대상의 해외 입양은 전쟁 이후 오히려 제도화되면서 탄탄한 사업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젠더적, 인종적 차별의 논리를 강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전쟁 이후 정상성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보이지 않게 지우거나 경계 바깥으로 추방하는 방식의 사회구성이나 조절 메커니즘이 좀더 정교해지고 상시화되어 한국사회의 성격 구성에 기능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또 다른 연결고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형성된 (한국어로 기지촌으로 불렸던) 밀리터리 캠프 타운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기지 주변에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었다.⁴⁷ 소설 『단순한 진심』을 통해 소설가 조해진은 전쟁기 ‘이후’ 기지촌에서 태어나 벨기에로 입양된 혼혈아의 흔적을 뒤쫓는다. 입양의 과정이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처리될 수 없으며 사회구조적인 배제논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여성 연대를 기반으로 포착한다.⁴⁸ 전쟁기 형성된 기지촌과 주변 풍경이 전쟁 이후 사회의 집단 기

46 제인 정 트렌카, 「백만 명의 살아 있는 유령들-구조적 폭력, 사회적 죽음 그리고 한국의 해외입양」, 『여/성이론』 제22호, 도서출판 여이연, 2010, 34쪽. 국가 주도로 배제할 존재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트랜스내셔널한 입양은 입양산업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경제 논리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해두어야 할 것이다. 제인 정 트렌카가 지적했듯이, “입양수수료” 혹은 “기부금”으로 인한 수입이 산업화시기 한국에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중요도를 가졌었는지에 대한 좀더 본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47 조해진, 『단순한 진심』, 2019, 민음사, 180쪽.

48 “그날처럼 연회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씻기는 손길이 무척 거칠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펐고 연회가 가여웠습니다. 그때 연회는 내내 울고 있었으니까요. / 바로 그날이었을 거예요. 연회가 입양을 결심한 것은. 나는 지난 편지에 연회가 입양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썼지만, 사실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해하려 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의 책, 232쪽.

역에서 흐릿해지며 망각되기에 이르지만, 고착화된 분단 현실 속에서 한국사회에 다층적인 음영을 만들며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그로부터 야기된 비극이 종종 약해진 기반을 뚫고 떠오른다는 사실을 짚는다. 기지촌 여성과 입양-혼혈아라는 사회적 유령의 흔적을 쫓는 자리에서, 소설 『단순한 진심』은 입양에 대한 이야기의 근저에 전쟁기 기지촌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기원처럼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지금 이곳에서 왜 한국전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안의 일단은 여기에서 찾아진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강용준, 「광인일기」, 『광인일기』, 예문당, 1974.
 김금숙, 『기다림』, 딸기책방, 2020.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1999.
 _____,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1999.
 윤홍길, 『장마』, 민음사, 1980(1973).
 _____,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창작과비평사, 1979.

단행본

- 김귀옥 외,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2008.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사, 2004.
 김원,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현실문화, 2011.
 박찬경 외, 『귀신 간첩 할머니』, 현실문화, 2014.
 역사문제연구소 한독비교사포럼 기획, 『분단의 역사인식과 사유를 넘어』, 한울, 2019.
 은유, 『폭력과 존엄 사이』, 오월의봄, 2016.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조해진, 『단순한 진심』, 민음사, 2019.
 한국구술사학회 편,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홍순권 외, 『전쟁과 국가폭력』, 선인, 2021.

권현익, 박충환·이창호·홍석준 역,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산지니, 2016.

_____, 정소영 역,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로이 리처드 그린커, 정혜영 역, 『정상은 없다』, 메멘토, 2022.

일라이 클레어, 전해은·제이 역, 『망명과 자긍심』, 현실문화, 2020.

Cho, Grace M., *Haunting the Korean diaspora: shame, secrecy, and the forgotten wa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논문

김동춘, 「'간첩 만들기'의 전쟁정치: 지배질서로서 유신체제」, 『민주사회와 정책 연구』 제21호,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2, 146-174쪽.

김병덕, 「불모의 현실과 여성적 화해의 세계-윤홍길론」, 『비평문학』 제3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35-59쪽.

김봉국,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간첩 담론의 양가성」, 『역사연구』 제22호, 역사학연구소, 2012, 105-138쪽.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제32권, 한국사학사학회, 2015, 325-364쪽.

박성은, 「윤홍길 소설에 나타난 분단 트라우마의 증상과 사회적 치유-「장마」,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낮」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 제80권, 2021, 75-111쪽.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 사회의 속물화-‘형그리 정신’과 시민사회의 불가능성」, 『한국학연구』 제32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73-313쪽.

소현숙, 「신체에 각인된 전쟁의 성차와 치유: 한국전쟁기 노근리 피해자 구술에서 나타난 장애와 젠더」, 『동방학지』 제19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199-224쪽.

제인 정 트렌카, 「백만 명의 살아 있는 유령들-구조적 폭력, 사회적 죽음 그리고 한국의 해외입양」, 『여/성이론』 제22호, 도서출판 여이연, 2010, 33-51쪽.

조선희, 「윤흥길의 「장마」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 나타난 분단 극복의 양상」, 『개신어문연구』 제20호, 개신어문학회, 2003, 781-809쪽.

Abstract

Ghosts of the Korean War

So Younghyun

Interest in the ghosts of the Korean War is an interest in the costs of war, primarily death and other war experiences that have not been mourned or recorded. That is, it is an interest in capturing the “life/death” that cannot be mourned, the “oblivion/memories” that cannot be uttered, and the “pain/voices” that cannot be verbalized. This interest does not only refer to an ethical attitude toward minorities and others. Indeed, as the word “ghost” implies, war experiences and the harm war causes cannot be mourned and are not forgotten; they penetrate through time and do not disappear. Moreover, they often reappear and are deeply involved in daily life. This paper recognizes that most of the harms of war, including civilians being shot to death, disappearances, and killings, do not leave behind dead bodies that can be found to prove the damage. Therefore, I establish invisible war damage as a historical fact, and I seek to ask why the victims of massacres had no choice but to become ghosts. While focusing on the works of Kang Yong-jun, Yoon Heung-gil, Park Wan-seo, and Kim Keum-sook, I examine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that create ghosts and look at the “placelessness” of ghosts rather than their existence by evoking “folded time and space.”

Key words: Korean War, ghosts, woman, war damage, disability, gender, Yoon Heung-gil, Kang Yong-jun, Park Wanseo, Kim Keum-suk

본 논문은 2022년 11월 24일에 접수되어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